- 제 3회 수원시 청년의 날 주간행사-

수원청년축제「안전지대」기록

가장 사적인 대화모임 '행복행! 진짜 행복행?' · 청년정책포럼 '행복행? 진짜 행복행!'

1. 가장 사적인 대화모임 '행복행! 진짜 행복행?'

a. 프로그램 소개

i. 청년정책포럼 및 수원청년축제「안전지대」를 위한 비공식 대화모임

ii. 청년들이 '도시에서의 생존, 행복' 등 청년이 제안한 주제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됨

b. 일정 및 장소

i. 2022. 8 ~ 9 중 총 6회 진행, 행궁동 일대

회차	일시	장소	주제	진행
1	08.17	유스피아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 OO씨의 행복여행	홍유란 (유스피아 대표, 사진작가)
2	08.23	슬리핑테이블	우리집 마당에 고양이가 있다	박상연 (슬리핑테이블 대표)
3	8.26	더빌리지사이프	감정에 대한 사유 : '인사이드 아웃'	양수빈 (사회적협동조합 드리머스 소속)
4	8.30	인희네포차	로컬리즘 수다로 풀어보자	노민호 (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5	9.2	롱플레이어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 기후위기…	김동산 (롱플레이어 대표, 음악가)
6	9.5	디드	재테크 – 리셀테크	김성겸 (디드 대표)

c. 프로그램 내용

i. 1회차: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 00씨의 행복여행 (행복)

1회차	
소주제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 OO씨의 행복여행 (행복)
일시	2022.08.19. 오후 7시
모임장소	유스피아
참여자	홍유란(모더레이터), 박승현, 이경엽, 조은경, 하윤진, 황동준

내용

진정한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유스피아 홍유란님의 행복 여행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행복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해보기 위해 주간 행복 리포트도 적어 봤어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우리 삶에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모임에 참여해 유란님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분도, 비슷했던 본인의 경험이 떠올라 다시 그때로 돌아갔다 온 기분이라 좋았다는 분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모임이 생겨 좋았다는 분도,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분도 계셨던 따뜻한 대화모임이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데,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나누며 행복도 나눌 수 있는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

-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 '왜' 행복해져야하는지?
- '무엇을 위해' 행복해질 것인지?
-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사진

ii. 2회차: 우리집 마당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2회차	
소주제	우리집 마당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일시	2022.08.23. 오후 7시
모임장소	슬리핑테이블
참여자	박상연(모더레이터), 양수빈, 이승연, 홍유란

내용

따뜻한 가정식 요리가 있는 슬리핑테이블 마당에 들어서자 귀여운 고양이들이 참여자들을 맞이해줬어요.
고양이와 사는 매일이 행복한 박상연님이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고양이인 '마당이'와의 스토리를 시작으로 고양이로 인해 느끼는 감정의 면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당과 자연의 삶, 그리고 생명체를 돌보는 삶을 지내오면서 삶에 대해, 공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상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 애정을 쏟는 존재가 생겼을 때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연님에게 고양이가 그렇듯, 나의 삶을 가득 채워줄 무언가가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두 번째 대화모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

- 성공 지향적인 삶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 내가 사는 도시는 작은 생명이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인지?
-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진

iii. 3회차: 감정에 대한 사유 : '인사이드 아웃' (정신건강)

3회차	
소주제	감정에 대한 사유 : '인사이드 아웃' (정신건강)
일시	2022.08.26. 오후 7시
모임장소	더빌리지사이프
참여자	양수빈(모더레이터), 강시내, 김민기, 박승현, 정현빈, 조병현, 조은경, 최현주, 하윤진, 홍유란

내용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심리학 관련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의 진행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다채롭게 시간을 채워봤어요.

'나' 의 감정과 친해져 보기 위해 감정에 대해 사유해 보고, 영화 인사이드아웃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수많은 감정에 대해 살펴봤어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각각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와도 잘 나누지 않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보는 분들과 해볼 수 있어 좋았다는 분도, 심리학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는 분도,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등한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여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세 번째 대화모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

- 슬픔과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지?
-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 나에게 평화의 순간이 있다면?

사진

iv. 4회차: 로컬리즘 수다로 풀어보자 (로컬리즘)

4회차	
소주제	로컬리즘 수다로 풀어보자 (로컬리즘)
일시	2022.08.30. 오후 7시
모임장소	인희네포차
참여자	노민호(모더레이터), 문상철, 박승현, 손민정, 이승연, 장예원, 정기엽, 최현주, 하윤진, 홍유란, 황동준

내용

20대 초반부터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시민이라는 주제로 살아온 노민호님의 진행으로 로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노민호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로컬이란 무엇인지, 수원이 지역으로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근 수많은 드라마의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 행궁동. 사실 행궁동은 이미 예전부터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만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런 행궁동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는 청춘들이 모여 로컬리즘에 대해 고민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수원의 청년들과 만나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에 대해, 로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밤이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질문

- 시민 사회로 발전하는 흐름 속에서 청년 세대가 준비할 것은?
- 행궁동에 관한 관심이 수원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서울에서 돌아온 청년이 로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진

v. 5회차: 기후위기…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기후위기)

5회차	
소주제	기후위기…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기후위기)
일시	2022.09.02. 오후 7시
모임장소	롱플레이어
참여자	김동산(모더레이터), 김은중, 박승현, 이승연, 한정우

내용

과거 환경 운동을 전개하셨던 행궁동 LP샵 롱플레이어의 사장님이자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의 진행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2006년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서 예고된 기후변화가 2016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현실화되면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제약이 있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거대한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의 '실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도 나눴어요.

김동산님은 한 사람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으며 '의식화'를 강조했어요.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될 그 날까지, 진보적 가치에 골몰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트렌드 세터가 되자고 제안하셨어요.

내 주변을 바꾸는 작은 실천!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와 사회의 연결을 생각하는, 실존적인 트렌트 세터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질문

- 나의 작은 행동이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기후 위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 사회는 항상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 나는 변화된 사회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지?

사진

vi. 6회차: 재테크-리셀테크 (재테크)

6회차	
소주제	재테크-리셀테크 (재테크)
일시	2022.09.06. 오후 7시
모임장소	디드
참여자	김성겸(모더레이터), 강시내, 김다빈, 김영준, 박승현, 최현주, 하윤진, 홍유란

내용

행궁동에서 리셀편집샵을 운영하는 디드의 믹샘님의 진행으로 리셀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믹샘님이 리셀이란 것을 처음 접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리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또한 단순히 돈을 번다는 상업적 가치를 넘어, 커뮤니티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믹샘님이 해나가고 있는 여러 시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믹샘님이 들려주신 로컬에서 로컬로 연결되며 세계로 확장된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수원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주는 로컬씬이 멋지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

- 모든 마니악한 분야에서 재테크
- 리셀테크가 가능한지?
- 로컬 청년이 직접 새로운 문화, 영컬쳐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 과도한 소비문화에서 합리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지?

사진

2. 청년정책포럼

a. 프로그램 소개

i.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 맞아 청년정책을 숙의하는 행사 마련

ii.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정책의 사례를 공유하고, 수원시와 수원시 청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

iii. 수원시 청년 모임의 대화 기록을 토대로 발제문과 토론문 작성

iv. 발제와 토론 이후에 현장에 모인 관중들과 자유롭게 토론

b. 일정 및 장소

i. 2022. 09. 16.(금), 팔달문화센터(온라인 송출)

시 간			행 사 내 용
일자	부터	까지	
9.16.	18:00	18:10	청년정책포럼 소개
	18:10	18:30	발제1(김동희)
	18:30	18:50	발제2(백지훤)
	18:50	19:10	발제3(조은주)
	19:10	19:15	토론1(황대호)
	19:15	19:20	토론2(최원용)
	19:20	19:25	토론3(황동준)
	19:25	20:00	자유토론

c. 참석자 구성

No	성명	분야	소속
1	한정우	좌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	김동희	발제자	청년활동가
3	백지훤	발제자	인천시 공동체지원팀 주무관
4	조은주	발제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5	황대호	토론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6	최원용	토론자	수원특례시의원
7	황동준	토론자	수원 청년협의체 회장
8	박승현	연출 및 진행	수원행

d. 발제문 및 토론문

i. 김동희 발제 - 청년, 소확행을 폭로하다

1. 한국에서의 '소확행' 개념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자조를 반영한 사회 현상에 가까움. 소확행 개념이 즉시적 쾌락에 몰두하는 청년의 나약함으로 대치되며 나아지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늘어나는 우울감, 자살, 은둔 등 인간 소외 문제를 조명하고자 함
2. 승자독식을 믿으며, 미디어가 자극하는 욕망에 자극받은 청년 세대는 곧 물질적인 욕망을 쟁취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됨. 공허한 각자도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태에서 경쟁에서의 승리 여부는 진정한 행복과 무관함
3. 무의미한 미디어를 추앙하고, 취약 계층을 추방하고, 이익을 위해 갈등을 이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욕망에 집중하고, 다 같이 생존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ii. 백지훤 발제 - '로컬청년', '개인'이 '공동체'로 살아가기

1. 다원화된 사회에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같은 공동체를 시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패턴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공동체 패러다임을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임
2.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결속력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폭력적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기획이 필요함
3. 정량적 성과를 단기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의 정책 지원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전제하는 체계를 지양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실패하는 원인부터 면밀히 조사해야 함

iii. 조은주 발제 - '생존주의 시대 新 행복추구권'

1. 청년들의 고독사,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는 현황에 비추어 사회관계망의 측면에서 동시대 청년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 보장 안전망에 들어가고, 생애주기의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되어 주는 것이 청년정책임
2. 청년들의 생존권의 핵심은 '고립된 의존 상태'가 아닌 '연결된 독립 상태'임. 청년이 시민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때 '연결된 독립 상태'가 이루어짐
3.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자율권, 권한과 역할을 주고 기다려주어야 함. 청년들이 관계망을 만들어가며 나다움의 가치를 구현하고 대안적인 삶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iv. 황대호 토론 – 청년다움의 회복

1. 수원시의 청년 인구수는 전 연령의 1/4에 육박하나 청년들은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수원시의 청년바람지대의 예산의 크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청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임
3. 청년들의 힘든 삶을 연명시키는 복지 차원의 정책보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시민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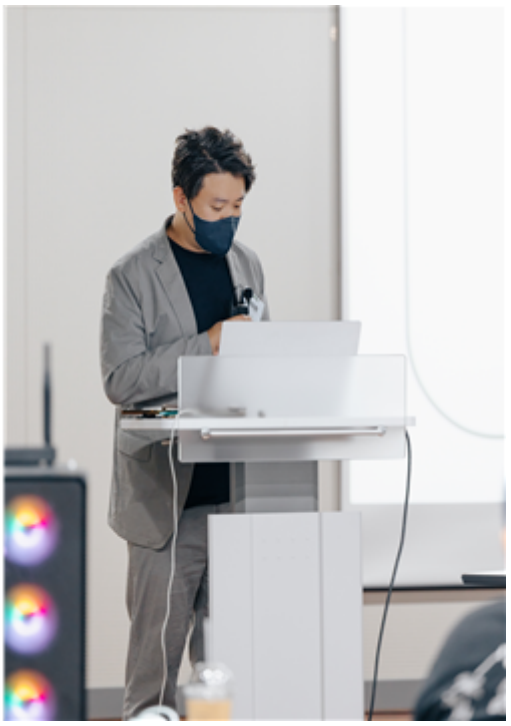
v. 최원용 토론

1. 정책이 청년들의 행복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야 함
2. 청년 세대의 비관적 현실 인식의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3.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함

vi. 황동준 토론

1. 청년 문제의 근원은 교육에 있음. 대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청년 세대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가로막고 있음

2. 청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청년은 선택을 강요받은 세대라고 생각함. 시키는 대로 했으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 암울한 상황임
3. 세대 간에 불만만 토로하고 서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듯 향후 한국의 중심이 될 청년 세대에 격려 및 지지를 보내주길 바람



청년정책포럼
조은주